

남 · 녀 중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김종신¹ · 박현주²

춘성중학교 보건교사¹,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대학 교수²

Comparison of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eer Relationship on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ng Sin Kim¹ · Hyunju Park²

¹School Health Teacher, Chunseong Middle School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eer relationships betwee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self-esteem in students of different gend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August and September of 2023 and analyzed using SPSS 24.0. Data were collected from 289 male and 240 female students through a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t-test,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Fe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3.06 ± 0.77 vs. 2.82 ± 0.74), significantly lower scores for appearance satisfaction (2.55 ± 0.46 vs. 2.71 ± 0.40), an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peer relationships (3.46 ± 0.69 vs. 3.00 ± 0.78) than male students. Additionally,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lower in female students (2.84 ± 0.59) than in male students (2.95 ± 0.51). As a result of adjusting for weekly allowanc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family economic status, stress, and experience of sadness or despair, which were significant in the univariate analysis, self-esteem increased as appearance satisfaction (p for all $< .001$) and peer relationships increased in both male ($p = .009$) and female ($p < .001$) students. In addi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lf-esteem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weekly allowanc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in both genders. Relationships with par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only in male students, and experience of sadness or despair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in female students.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self-esteem in both boys and girl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eer relationships should be improved. As boys with poo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girls with high levels of sadness or despair are particularly likely to have low self-esteem, they are to be considered as a high-risk group.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Middle school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Hyunju Park

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종신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is a revised paper from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Received: Apr 1, 2024 / Revised: Apr 15, 2024 / Accepted: Apr 15,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의 시기이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1].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급격한 심신의 변화에 따른 불안과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 혹은 평가를 의미하며[3],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 불안 및 우울이 높았고[4], 청소년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높은 발달과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고[5], 이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이 때문에[5] 외모와 관련된 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10].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고[6,8],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7,9,10]. 따라서 외모와 관련된 변수들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중요한 변수들은 외모 관련 변수들, 부모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으로 보고되었다[11]. 따라서, 외모 관련 변수들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할 때, 부모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 스트레스, 우울 등의 중요한 변수들을 보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연구에 고려하지 않았고 주로 단변량 분석에 그치고 있다[6,8-10].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외모 관련 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상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은 모두 남·여 청소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하였고[13,14], 외모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9]. 또래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고[15],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즉,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도 있고[9],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6,8]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수들이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각각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각각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많으나[6-12], 이 세 가지 변수 및 기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 즉,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슬픔 및 절망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들이 남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살펴본 연구 역시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 결과를 남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시기가 가장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불안감과 불안정함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면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외모지상주의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이후 고등학생이 되면 이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5]. 본 연구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각각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어떠한지 비교

하고, 이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남학생과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일반적 특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단면조사연구이며,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도에 위치한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사전에 연구참여 허락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학부모의 사전 동의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응답이 불가능한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고,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설문지의 설명문에 고지하였고, 언제라도 연구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담임교사를 통해 알려주었다. 설문지 응답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의해 응답한 설문지는 봉투에 담은 후 밀봉하여 담임교사가 수합한 후 이를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10, 검정력 .85, 유의수준 .05, 예측변인 15개로 설정하였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최소 22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 정도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남·여학생 각각 290, 총 5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544명이 동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자 15명을 제외하여 총 529명(남학생 289명과 여학생 240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KWNUIRB-2023-06-003-001)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을 식별할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제1저자만이 접근 가능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장소에 2년간 보관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전산자료를 삭제, 설문조사는 파쇄하여 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또래관계, 자아존중감이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학년, 용돈(일주일 동안 쓰는 돈), 학교유형(남학교, 여학교, 남녀 공학), 주관적 학업 성취도(상, 중, 하), 가정경제수준(상, 중, 하),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슬픔 혹은 절망 경험 정도를 포함하였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 가정 경제수준은 모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고, 부모와의 관계는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으며, 좋지 않음, 보통, 좋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를 질문하였고,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느끼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슬픔이나 절망 경험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느끼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SATAQ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를[16] 번안하

여 아동 및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13]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식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기준을 보다 잘 내면화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 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근육이 발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날씬하거나 예쁜 외모가 중요하다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적 가치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9로 보고되었고[13], 본 연구에서는 .91로 조사되었다.

외모 만족도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17] 아동 및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3]. 본 도구는 “나는 내 몸무게에 만족한다”,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좋아한다” 등으로 이루어진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식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으며[13], 본 연구에서는 .89로 조사되었다.

또래관계는 Parker와 Asher가 개발한 것을[18], 황효진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9]. 이 도구는 얼마나 또래와 도움을 주고 받는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서로에게 인정받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5점식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91로 보고되었고[19], 본 연구에서의 .94로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3] 문선영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다[20]. 총 10문항, 4점식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한 후 총점을 구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3으로 보고되었고[20],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 및 모든 변수들에서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남·여학생을 비교하였다. 둘째, 남·여 중학생 별로, 일반적 특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 관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t-test, ANOVA 및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및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남·여 각각에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 비교

연구대상자 529명 중 남학생은 289명, 여학생은 240명이었(Table 1).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일주일 용돈, 주관적으로 지각한 학업 성취도,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년은 남학생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92명(31.8%), 91명(31.5%) 106명(36.7%)이었고, 여학생에서는 각각 91명(37.9%), 79명(32.9%), 70명(29.2%)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용돈은 만원 이상 2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남학생(103명, 35.6%)과 여학생(84명, 35.0%)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 성취도는 남학생(113명, 39.1%)과 여학생(102명, 42.5%) 모두 중간이라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남학생(234명, 81.0%)과 여학생(190명, 79.2%) 모두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음이라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남학생(140명, 48.4%)과 여학생(108명, 45.0%) 모두에서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정경제수준과 슬픔이나 절망감의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수준은 남학생에서는 하, 중, 상의 비율이 각각 16명(5.5%), 180명(62.3%), 93명(32.2%)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에서는 각각 8명(3.3%), 176명(73.3%), 56명(23.3%)으로 조사되어, 남학생에서 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p=.024$). 슬픔이나 절망감 경험의 비율은 남학생에서는 많이, 조금, 없음이 각각 14명(4.8%), 85명(29.4%), 190명(65.7%)이었고, 여학생에서는 각각 26명(10.8%), 67명(27.9%), 147명(61.3%)으로 조사되어 여학생에서 슬픔이나 절망감을 많이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p=.034$). 남학생과 여학생

Table 1.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N=529)

Variables	Categories	Total n (%) or M ±SD	Gender		χ^2	p
			Male (n=289) n (%) or M ±SD	Female (n=240) n (%) or M ±SD		
Grade	1st Grade	183 (34.6)	92 (31.8)	91 (37.9)	3.71	.157
	2nd Grade	170 (32.1)	91 (31.5)	79 (32.9)		
	3rd Grade	176 (33.3)	106 (36.7)	70 (29.2)		
School type*	Girl's school	107 (20.2)	-	107 (44.6)	288.44	< .001
	Boy's school	106 (20.0)	106 (36.7)	-		
	Coeducational school	316 (59.7)	183 (63.3)	133 (55.4)		
Allowance/week (won)	< 10,000	128 (24.2)	74 (25.6)	54 (22.5)	1.05	.790
	10,000~< 20,000	187 (35.3)	103 (35.6)	84 (35.0)		
	20,000~< 30,000	92 (17.4)	49 (17.0)	43 (17.9)		
	≥ 30,000	122 (23.1)	63 (21.8)	59 (24.6)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Low	148 (28.0)	74 (25.6)	74 (30.8)	4.76	.092
	Middle	215 (40.6)	113 (39.1)	102 (42.5)		
	High	166 (31.4)	102 (35.3)	64 (26.7)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24 (4.5)	16 (5.5)	8 (3.3)	7.42	.024
	Middle	356 (67.3)	180 (62.3)	176 (73.3)		
	High	149 (28.2)	93 (32.2)	56 (23.3)		
Relationship with parents	Bad	18 (3.4)	8 (2.8)	10 (4.2)	.82	.664
	So-so	87 (16.4)	47 (16.3)	40 (16.7)		
	Good	424 (80.2)	234 (81.0)	190 (79.2)		
Stress	A lot	167 (31.6)	81 (28.0)	86 (35.8)	4.02	.134
	A little bit	248 (46.9)	140 (48.4)	108 (45.0)		
	None	114 (21.6)	68 (23.5)	46 (19.2)		
Sadness or despair	A lot	40 (7.6)	14 (4.8)	26 (10.8)	6.74	.034
	A little bit	152 (28.7)	85 (29.4)	67 (27.9)		
	None	337 (63.7)	190 (65.7)	147 (61.3)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93 ±0.76	2.82 ±0.74	3.06 ±0.77	-3.68	< .001
Appearance satisfaction		2.64 ±0.43	2.71 ±0.40	2.55 ±0.46	4.27	< .001
Peer relationship		3.21 ±0.78	3.00 ±0.78	3.46 ±0.69	-7.01	< .001
Self-esteem		2.90 ±0.55	2.95 ±0.51	2.84 ±0.59	2.36	.019

*Fisher's exact test; M=Mean; SD=Standard deviation.

사이에 학교 유형은 유의하였으나(여자중학교 107명, 남자중학교 106명, 남녀 공학 316명), 이는 여자중학교에는 여학생만, 남자중학교에는 남학생만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남학생 평균(2.82 ±0.74), 여학생은(3.06 ±0.77)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외모 만족도는 남학생 평균(2.71 ±0.40), 여학생은(2.55 ±0.46)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1$). 또래관계는 남학생 평균(3.00 ±0.78), 여학생은(3.46 ±0.69)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자

아존중감은 남학생 평균(2.95 ±0.51), 여학생은(2.84 ±0.59)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19$).

2. 단변량 분석 결과

먼저 남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살펴보면, 일주일 용돈,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 성취도, 가정 경제수준,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슬픔이나 절망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과 학교 유형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없었다. 즉, 일주일 용돈은

Table 2. Bivariat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in Each Gender

(N=529)

Variables	Categories	Male (n=289)			Female (n=240)			
		M±SD	t or F or r	p (Scheffé)	M±SD	t/F/r	p (Scheffé)	
Grade	1st Grade ^a	2.97±0.49	0.06	.938	2.84±0.61	0.37	.701	
	2nd Grade ^b	2.96±0.50			2.81±0.62			
	3rd Grade ^c	2.94±0.53			2.89±0.53			
School type	Single-gender school	3.00±0.49	1.17	.245	2.88±0.56	0.82	.414	
	Coeducational school	2.93±0.52			2.81±0.61			
Allowance/week (won)	<10,000 ^a	2.84±0.53	4.16	.007	2.65±0.63	2.69	.047	
	10,000~<20,000 ^b	2.93±0.54			2.92±0.57			b>a
	20,000~<30,000 ^c	2.95±0.40			2.85±0.49			
	≥30,000 ^d	3.13±0.45			2.90±0.6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Low ^a	2.80±0.54	4.81	.009	2.57±0.64	15.53	<.001	
	Middle ^b	3.02±0.47			2.89±0.51			b, c>a
	High ^c	2.99±0.51			3.09±0.52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a	2.83±0.42	3.53	.031	2.31±0.69	7.34	.001	
	Middle ^b	2.91±0.53			2.80±0.57			b, c>a
	High ^c	3.07±0.46			3.04±0.57			
Relationship with parents	Bad ^a	2.21±0.79	13.23	<.001	2.29±0.92	7.30	.001	
	So-so ^b	2.80±0.47			2.68±0.51			c>a
	Good ^c	3.01±0.48			2.90±0.56			
Stress	A lot ^a	2.66±0.55	26.47	<.001	2.52±0.60	32.58	<.001	
	A little bit ^b	3.01±0.44			2.92±0.46			c>b>a
	None ^c	3.20±0.42			3.28±0.52			
Sadness or despair	A lot ^a	2.55±0.65	20.29	<.001	2.25±0.66	39.72	<.001	
	A little bit ^b	2.74±0.54			2.58±0.51			c>b>a
	None ^c	3.08±0.43			3.06±0.48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8	.002		-.33	<.001	
Appearance satisfaction			.61	<.001		.67	<.001	
Peer relationship			.29	<.001		.28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3만원 이상(3.13±0.45)이 1만원 미만(2.84±0.53)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7$).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중(3.02±0.47)과 상(2.99±0.51) 그룹이 하(2.80±0.54)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9$). 가정경제수준은 상(3.07±0.46)이 하(2.83±0.42)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31$). 부모와의 관계는 좋음(3.01±0.48)과 보통(2.80±0.47)이 좋지 않음(2.21±0.79)이라고 응답한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1$).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그룹이(3.20±0.43) 조금 느낀다는 그룹이나(2.74±0.54) 많이 느낀다는 그룹(2.66±0.55)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슬픔이나 절망감 정도는 느끼지 않는다는 그룹이(3.08±0.43) 많이 느낀다는 그룹(2.55±0.65)과 조금 느낀다는 그룹보다(2.74±0.54) 자아존중감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1$).

남학생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아지고($r=-.18, p=.002$), 외모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61, p<.001$). 또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29, p<.001$)(Table 2).

다음으로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용돈,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업 성취도, 가정경제 수준,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슬픔이나 절망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과 학교 유형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없었다. 즉, 일주일 용돈은 1~2만원 미만 그룹이(2.92±0.57)이 1만원 미만 그룹에 비해(2.65±0.63) 자아존중감이 유의하

게 높았다($p=.047$).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중(2.89 ± 0.51)과 상 그룹이(3.09 ± 0.52)이, 하 그룹보다(2.57 ± 0.64)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가정경제수준은 중(2.80 ± 0.57)과 상 그룹이(3.04 ± 0.57) 하 그룹보다(2.31 ± 0.69)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부모와의 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그룹이(2.90 ± 0.56) 좋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보다(2.29 ± 0.92)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이(3.28 ± 0.52)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그룹과(2.92 ± 0.46),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그룹보다(2.52 ± 0.60)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슬픔이나 절망감 정도는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이(3.06 ± 0.48) 많이 느낀다고 한 그룹과(2.25 ± 0.66)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그룹보다(2.58 ± 0.51)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또한, 여학생에게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r=-.33, p < .001$),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r=.67, p < .001$).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28, p < .001$)(Table 2).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주일 용돈, 주관적 학업 성취도, 가정경제수준,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슬픔이나 절망감을 고려한 상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더빈-왓슨 값은 2.12에서 2.13으로 모두 2와 가까운 값들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 역시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남학생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일주일 용돈, 주관적 학업 성취도,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유의하였다. 즉, 용돈의 경우 1만원 미만에 비해 3만원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b=.21, p=.001$), 성적은 하에 비해 중($b=.12, p=.036$)과 상($b=.15, p=.010$)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좋지 않음에 비해 보통($b=.29, p=.044$)과 좋음($b=.39, p=.005$)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많음에 비해 없음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b=.19, p=.011$).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남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외모 만족도($b=.62, p < .001$)와 또래관계($b=.08, p=.009$)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53%로 조사되었다. 표준화된 베타(β) 값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외모 만족도는 .49, 또래관계는 .12로 나타나 남학생에서는 외모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학생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에는 일주일 용돈, 주관적 학업 성취도, 스트레스, 슬픔이나 절망감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의 경우, 1만원 미만에 비해 1~2만원 미만($b=.15, p=.019$)과 3만원 이상($b=.25, p < .001$)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하에 비해 중($b=.13, p=.026$)과 상($b=.21, p=.003$)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에 비해 느끼지 않는다($b=.33, p < .001$)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슬픔이나 절망감은 많이 느낀다에 비해 조금 느낀다($b=.21, p=.018$)와 느끼지 않는다($b=.33, p < .001$)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외모 만족도($b=.62, p=.001$)와 또래관계($b=.12, p=.001$)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β) 값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외모 만족도는 .48, 또래관계는 .15로 나타나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에서도 외모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 관계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서울 지역 중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8] 및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선형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이 여성들에

Table 3. Influence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Peer Relationships on Self-esteem in Each Gender (N=529)

Variables	Categories	Male (n=289)					Female (n=240)				
		B	SE	β	t	p	B	SE	β	t	p
Allowance/week (won)	< 10,000	Ref									
	10,000~< 20,000	0.04	0.06	.03	0.64	.526	0.15	0.06	.12	2.37	.019
	20,000~< 30,000	-0.02	0.07	-.02	-0.35	.724	0.01	0.08	.01	0.12	.906
	≥ 30,000	0.21	0.06	.17	3.25	.001	0.25	0.07	.19	3.59	< .00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Low	Ref									
	Middle	0.12	0.06	.11	2.10	.036	0.13	0.06	.11	2.24	.026
	High	0.15	0.06	.14	2.60	.010	0.21	0.07	.16	3.03	.003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Ref									
	Middle	0.13	0.10	.13	1.40	.163	0.14	0.14	.10	0.99	.321
	High	0.12	0.10	.11	1.17	.245	0.19	0.15	.14	1.29	.198
Relationship with parents	Bad	Ref									
	So-so	0.29	0.14	.21	2.02	.044	0.06	0.13	.04	0.42	.672
	Good	0.39	0.14	.30	2.86	.005	0.01	0.13	.01	0.08	.933
Stress	A lot	Ref									
	A little bit	0.06	0.06	.06	1.05	.294	0.09	0.06	.08	1.50	.134
	None	0.19	0.07	.16	2.56	.011	0.33	0.08	.22	4.02	< .001
Sadness or despair	A lot	Ref									
	A little bit	-0.07	0.11	-.06	-0.62	.537	0.21	0.09	.16	2.39	.018
	None	0.13	0.11	.12	1.17	.243	0.37	0.09	.31	3.96	< .00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0.01	0.03	.02	0.37	.712	-0.05	0.04	-.06	-1.26	.208
Appearance satisfaction		0.62	0.06	.49	9.85	< .001	0.62	0.07	.48	9.37	< .001
Peer relationship		0.08	0.03	.12	2.63	.009	0.12	0.04	.15	3.49	.001
		R ² =.53, Adj. R ² =.50, F=18.98, p<.001 Durbin-Watson=2.12, VIF=1.22~6.40					R ² =.65, Adj. R ² =.62, F=25.82, p<.001 Durbin-Watson=2.13, VIF=1.13~7.19				

게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21]. 둘째, 외모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고등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 셋째, 또래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남녀 중학생 13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5].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을 시사한다. 외모지상주의적인 태도 점수는 높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여학생들을 위해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들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성별 비교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즉,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고[6,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9]. 따라서 보

다 정확한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대상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남·여학생 별로 살펴본 것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모만족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10,156명 대상의 연구에서도 비록 비만도만 공변량으로 포함한 연구였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외모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 다른 남녀 중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한 단변량 분석에서도 외모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한 결과와도 [22]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국 남녀 중학생 5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23]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2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24]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자아존중감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남·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변량 분석 결과가 있었고[6],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비교, 신체상을 모두 고려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8].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남녀 9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는데 영향을 주고(비교의 결과 만족감이 달라지게 됨),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했다고 보고하였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외모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통계를 돌렸을 때 외모 만족도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변량 분석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매스 미디어의 영향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풍토가 여성을 물론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높으면 외모 관리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25],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적 가치의 소중함에 관한 교육 중재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적으로 일반적 특성 중 일주일 용돈,

주관적 학업 성취도,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일주일 용돈이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지역 남녀 고등학교 5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고[26],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7].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2]. 이 결과는 용돈이 적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에서만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남·여학생을 통합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13]. 따라서, 본 연구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살펴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청소년기에 각각의 성별로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슬픔이나 절망감은 여학생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슬픔이나 절망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기존 선행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류하여 이들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2022년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픔이나 절망감 경험률은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여학생에서 더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28],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슬픔이나 절망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여학생을 대상으로 슬픔과 절망감 경험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중학생을 편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남·여 중학생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구분하여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므로, 성별로 특화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 만족도와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용돈이 적거나,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하여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남학생 및 슬픔이나 절망감을 많이 경험하는 여학생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므로 이들을 선별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남·여 중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만족도, 또래관계를 비교하고, 각각의 성별에서 이들 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수준이 높았으며, 외모 만족도는 낮아 교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긍정적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남·여 중학생 모두 일반적 특성 중 일주일 용돈이 많거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낮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남학생에서만, 슬픔이나 절망감은 여학생에서만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외모 만족도를 높이거나, 또래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증시되는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도 매우 중요함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일 지역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면조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e promise of adolescence: realizing opportunity for all youth [Internet]. US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9 [cited 2024 March 30]. Available from: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45476/>
2. Chung MJ, Yuh JI. Eff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n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self-wor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9;30(3):71-82.
3.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p. 1-340.
4. Cho ES, Seo JM.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0;19(1):57-66. <https://doi.org/10.12934/jkpmhn.2010.19.1.57>
5. Yun YM, Jung SH. Trajectories of appearance concerns of South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8;43(4):245-254. <https://doi.org/10.21032/jhis.2018.43.4.245>
6. Bae EY. The effect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emotional support of parents on self-esteem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Daegu: Daegu Haany University; 2018. p. 1-35.
7. Chung IJ, Lee JY. The impact of obesity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on self-esteem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1;38:60-80.
8. Hyun JS. Influence of self-esteem on socio-cultural attitudes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2007. p. 1-48.
9. Jo MK, Eun KL.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 mediation-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aching Psychology*. 2020;4(2):57-69.
10. Jang SC, Song MH.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 Youth Research*. 2004;13(3):115-133.
11. Lee SM. Exploring domestic research trends on self-esteem of youth.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21. p. 1-47.
12. Jeong MS.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Youth Culture Forum*. 2010;25(25):139-170.
13. Kim BY. The relationships among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perceived parenting styles, body-esteem, and eat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ogang University. 2016. p. 1-48.
14. Kim SJ, Wee EH.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ance management

-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15;39(1):1-14.
<https://doi.org/10.5850/JKSCCT.2015.39.1.1>
15. An SY, Lee HS.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9;21(3):163-176.
16. Heinberg LJ, Thompson JK, Stormer 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995;17(1):81-89.
[https://doi.org/10.1002/1098-108x\(199501\)17:1<81::aid-eat260170111>3.0.co;2-y](https://doi.org/10.1002/1098-108x(199501)17:1<81::aid-eat260170111>3.0.co;2-y)
17. Mendelson BK, Mendelson MJ, White DR.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01;76(1):90-106.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7601_6
18. Parker JG, Asher SR.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987;102(3):357-389.
<https://doi.org/10.1037/0033-2909.102.3.357>
19. Hwang HJ, Lee YN. The mediation effects of peer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go-identity. *Education Research*. 2012;35:25-52.
20. Moon SY.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ewelry wearing on the self-esteem and stress.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018;19(4):143-153.
<https://doi.org/10.47294/KSBDA.19.4.11>
21. Thompson JK, Stice E. Thin 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or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1;10(5):181-183.
<https://doi.org/10.1111/1467-8721.00144>
22. Lee KH, Ahn G. The effect of the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2013;5(1):73-83.
23. Lyu MJ.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peer relationship,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2022;24(2):57-66.
<https://doi.org/10.47684/jcd.2022.06.24.2.57>
24. Kim MK, Cho GP.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 on their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5):757-775.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5.757>
25. Lee MS.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male consum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014;16(4):63-77.
26. Lee WK, Doh HS. Correlates of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expectations and emotion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5;26(3):43-59.
27. Park S.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2014;5(1):17-33.
28.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2022 student health examination and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result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3 [cited 2024 March 30].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4695>